

한일 EPA / FTA¹ 실현을 위한 조기협상재개, 조기체결 요망서

2011년 12월
SJC(Seoul Japan Club)
부산일본인회

Seoul Japan Club (SJC) 및 부산일본인회는 422 개의 법인회원(주한 일본 기업) 및 2,119 명의 개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011년 11월 현재). SJC 및 부산일본인회는 한일 양국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며,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친선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상공회의소 기능'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회원들의 계발(啓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회(日本人會) 기능'을 겸비한 조직이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한국기업의 실적향상, 일본 내의 한국 붐(boom) 등을 배경으로 양국간 무역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증가, 관광객 증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우호적인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실적인 동향의 하나로, 자원·인프라 비즈니스를 비롯한 제3국에서의 양국 기업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내에서의 한국제품 브랜드파워, 판매상품의 종류와 수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한일 양국 기업은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자로서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최상의 파트너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함께 공존공영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공고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자 이를 상징하는 '한일 FTA'가 2004년 이후 협상이 중단되어, 아직까지도 재개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9월 말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43차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양국 간에 인적(人), 물적(品), 자본(金)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 경제의 번영과 파트너로서의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기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정비한 예측 가능한 역내 통합 경제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한일 FTA의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SJC 및 부산일본인회 또한 한일 FTA는 한일산업협력을 가속화, 고도화시키고 양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크게 공헌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전반에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 상태가 지속되어 시간이 지나도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 바, 다음과 같이 한일 FTA 조기 협상 재개 및 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한다.

¹ 본 명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나 본 요망서에서는 편의상 FTA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요망서의 개요

1. 한일 FTA 체결의 의의

- ① 긴밀한 한일간 경제관계.....3
한일 무역·투자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 향후 양국 발전을 위해 한일 FTA 가 실현되어야 함.
- ② 하나의 경제권3
한일 양국은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이웃나라. 앞으로도 제도조화(制度調和)를 추구하며 상호 경쟁우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공동 성장전략을 책정하는 등, 선구적 경제 연계 강화.
- ③ 제 3 국 시장에서의 협력 추진3
플랜트, 인프라 수출, 자원 개발 비즈니스에서 한일 기업의 연계는 서로의 강점을 융합시킨 고품질 저가의 인프라 제공이 가능. 향후, 세계 경제 발전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

2.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효과

- ① 한일 공통시장의 창출.....4
인구 1억 8,000만 명, 세계 GDP 의 약 10%, 1인당 GDP 36,700달러의 공통시장이 탄생.
- ② 대한, 대일 투자의 증가.....4
(가) 한국으로의 직접투자 제 2 위 일본
(나) 일본으로의 직접 투자 증가
(다) 일본계 기업의 높은 해외거점 이전(移轉) 의식
(라) 일본계 기업 관점에서 본 투자국으로서의 매력 증가
(마) 기(既)진출 일본계 기업의 기술지도를 통한 중소기업 및 저변산업의 육성
(바) 주한 일본 기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
- ③ 관세환급 절차 폐지.....6
대일수입 중 44.5%는 재수출품(再輸出品). FTA 체결로 사무절차 간소화가 가능.
- ④ 상호 인정, 제도조화에 의한 ‘하나의 경제권’ 실현, 비관세장벽의 철폐7
포괄적인 상호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인적, 물적의 이동이 원활한 ‘하나의 경제권’ 실현.
- ⑤ 일반소비자의 선택 다양화 및 확대7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다양화, 확대 되는 등 소비자의 이익 향상.
- ⑥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7
EU, 미국, 중동 등의 경제·금융·정치적 불안정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얼마전 합의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과 같이 한일이 협력하여 리스크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 대두.

3.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측의 우려사항에 대한 고찰

- ① 대일무역적자 문제.....7
한국측의 산업 구조상의 문제. 향후 한일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아가야 함.
- ② 중소기업대책.....9
일본기업에 의한 기술이전, 인재육성. 일본정부 등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책.

4. 맺음말.....9

한일 FTA 는 한일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강점을 한층 더 강화, 확대할 것임. 양국의 번영과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발전을 위해, 그리고 동북아시아 통합 경제권 구축을 위해 한일 FTA 가 필요함.

1. 한일 FTA 체결의 의의

① 긴밀한 한일간 경제관계

한일 간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수출은 일본이 28,176 백만 달러로, 중국(116,838 백만 달러), 미국(49,816 백만 달러)에 이어 제 3위의 상대국이며 수입은 64,296 백만 달러로 중국(71,574 백만 달러) 다음인 제 2 위 의 상대국이다. 대한 직접투자 누계는 26,866 백만 달러로 미국(44,894 백만 달러) 에 이은 제 2 위 의 투자국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출은 한국이 62,054 백만 달러로 중국(149,100 백만 달러), 미국(118,199 백만 달러) 다음인 세번째 수출상대국이며, 수입은 28,542 백만 달러로 제 8 위 의 상대국이다. 대일 직접투자 누계는 1,576 억엔으로 12 위 의 투자국이다. (*출처:2010 년도 각국 통계에 의거)

또한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로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역외(域外)지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경제권이며 상호보완적인 무역, 투자의 구조를 가진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또한 양국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WTO 에 의거한 자유무역체제를 기본으로, FTA 를 중요한 무역 정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의 상호보완성, 경제관계가 긴밀한 한일관계에서는 당연히 FTA 가 존재해야 하며, 향후 양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FTA 의 조기협상 재개, 협상 타결을 요망한다.

② 하나의 경제권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경제 등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이웃나라이다. 향후에도 양국의 안정적인 번영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제도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양국은 무역촉진, 상호투자 활성화, 산업교류, 자유로운 인적 이동, 인재육성, 지적재산보호 추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하나의 경제권’을 위해 진화(進化)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지난 10 월 노다 총리 방한 시 합의한 통화 스와프(SWAP)는 급속하게 긴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국 경제관계의 반증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은 모두 극동에 위치하며 국토면적도 작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앞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상호 경제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며 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자원, 식량문제 등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구입, 개발, 비축하는 등의 전략을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상호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등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한일 공동 경제성장 전략책정 등 보다 전향적이고 선구적인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일 FTA 체결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③ 제 3 국 시장에서의 협력 추진

제 3 국 시장에서 한일 기업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비즈니스(global business) 측면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OECD 에 따르면 향후 20 년 동안 세계의 인프라 수요는 71 조 달러로 시산(試算)되며 저가격 고품질의 인프라 제공은 한일 기업연합의 강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한일 양국 입장에서 자원 개발 프로젝트

는 중요한 테마이다. 따라서 특히, 플랜트 · 인프라 수출, 자원개발 비즈니스에서 한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①신속한 결단력 · 실행력 ②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영업력 ③ 높은 창의력(창조성)과, 일본의 강점인 ①자금(finance)력 ②종합상사의 노하우 ③높은 기술력을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 개발도상국 등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민간분야에서는 제 3 국 시장의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무역보험(NEXI)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의 재보험 협정 체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주최로 개최한 한일기업연계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 일본 종합상사 및 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신규 안건 발굴을 위한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MOU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행정(官)부문까지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세계적 규모의 방대한 인프라 · 자원 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강점을 살린 제 3 국에서의 한일 비즈니스 연계(business alliance)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FTA 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의 경제 파트너임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제 3 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 틀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효과

① 한일 공통 시장의 창출(하나의 경제권)

한일 공통시장이 창설되면 시장규모는 인구 1 억 8000 만 명, 세계 GDP 의 약 10%, 1 인당 GDP 36,700 달러로 중산층이 중심이 된 풍요로운 공통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또한 양국은 유사한 문화 가치, 교육 수준, 세제(稅制) 등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통 시장이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FTA 를 체결할 경우, 이 공통시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의 제약으로 고민해 온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3 위 규모인 일본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FTA 를 체결함으로써 일본과 시장을 공유하고 단기적으로는 무역, 자본, 정보, 기술 및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 시장을 실현,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한일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규범, 가치, 제도 조화 등 규범적 모델을 확립, 국제 공공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대한, 대일 투자의 증가

(가) 한국으로의 직접투자 제 2 위 일본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1990 년 말부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배경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비약적인 한국 세트 메이커(Set Maker)의 성장, 수요 증가에 맞춰 신속한 공급(JIT : just in time)을 하기 위한 현지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품 소재의 현지 조달을 위해, 또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R&D)거점을 설치하는 일본 기업이 늘

고 있으며 특히 2011년 1~8월은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1,257억 엔)라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일본으로의 직접 투자 증가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나,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1년 1~8월은 전년 동기대비 44.4%를 기록, 크게 증가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기업의 M&A이며 한국의 정부계 금융기관도 일본기업과의 M&A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 일본계 기업의 높은 해외거점 이전(移轉) 의식

현재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엔화 강세, 높은 법인세율, 엄격한 환경기준(CO₂ 절감 의무), 비싼 전기요금과 절전, 고(高)임금 등 사업환경의 악화로 해외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해외 이전을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①납품처와의 계약관계 ②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③부품, 소재의 조달 ④현지의 사업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한국의 세트 메이커를 대상으로 한 납품이므로 품질 확보의 관점에서 공장 설립에 관계된 제조기계설비 일식(一式), 부품, 소재 등의 조달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진출계획을 책정한다. 따라서 공장 설치 시 초기설비 등에 드는 관세는 자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라) 일본계 기업 관점에서 본 투자국으로서의 매력 증가

한국 정부는 외자의 투자유치를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외국 기업 전용 단지화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법인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화 약세, 세계적인 FTA 망, 저렴한 전기요금 등, 투자국으로서의 어드밴티지(advantage)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제조기계설비 일식, 부재(部材)의 수입 비용도 절감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 및 제조 비용의 저하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부품, 소재 서플라이 체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한국이,향후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므로, 일본 투자자들이 보았을 때의 투자 어드밴티지는 더욱 증가 할 것이고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기(既) 진출 일본계 기업의 기술지도를 통한 중소기업 및 저변산업의 육성

한국의 산업정책상 과제의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품질과 가격에 집착하여 협력업체를 엄격하게 대하는 한국 대기업의 체질에 있음은 많은 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한편, 일본계 기업은 제품 향상을 모토로 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 경영적 감

각으로 기술지도 등을 행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풍토가 있는 바, 일본기업의 진출은 일본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 대한 사고(思考) 도입 및 한국 중소기업의 인재육성, 기술이전, 저변산업 육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환경 하에 직면해 있는 바,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어 경쟁력 있는 부품, 소재, 자본재를 관세 없이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 주한 일본 기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

구체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일본 기업의 기업활동은 적지 않게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용, 납세는 물론이고 일본계 기업을 통해 한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제 3 국에서 한국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의 활동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한국의 GDP / GNP 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외국인기업 투자정보’에 따르면 2011 년 9 월 현재, 일본계 기업은 3,055 사)

한일 양국 사이에 이미 수준 높은 투자 협정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FTA 가 체결되어 투자 관련 조치가 더욱 정비되면 한국이 기대하는 일본의 투자 확대에 연결될 것이고, 이는 단지 한국의 경제성장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이 촉진되어 그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저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한 일본 기업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헌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한일 FTA 가 체결된다면 그 경제적 기여도는 한층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한 일본 기업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정확히 한국의 재계,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주한 일본 기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정확히 설명, 평가하여 한일 FTA 추진의 이점(merit)으로 폭넓게 홍보해 주기 바란다.

③ 관세환급 절차 폐지

한국에는 관세환급제도가 있으며 수출형 가공업체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 등 그 사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사무 부담이 크다. 한일 FTA가 체결되어 무관세화가 추진되면 그 사무 절차도 없어지므로 한일 양국 기업에게 메리트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입의 약 45%가 가공 후 재수출되는 무역구조임을 감안하면 이 부분의 메리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 기업의 의견: 원재료를 일본에서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가공 폐기물(scrap) 등은 당연히 수출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수출한 부분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무량이 발생하고 있다)

④ 상호 인정 등, 제도 조화에 의한 ‘하나의 경제권’ 실현, 비관세장벽의 철폐

양국의 과거 FTA에서도 특정분야에 대해 상대국에서 실시한 적합성 평가의 결과를 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상호인정’ 규정을 설치한 바, 한일FTA에서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상호인정을 비롯하여 환경, 제품안전기준, 각종 자격 등에 대한 상호인정 제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상호인정을 실시함으로써 한일 간은 보다 원활한 ‘물적’ 및 ‘인적’ 이동이 이루어져 ‘하나의 경제권’이 실현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철폐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양국에서 높은 규율의 상호인정제도 규범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모델이 되어 통합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⑤ 일반소비자의 선택 다양화 및 확대

최근 양국의 음식, 음악, 콘텐츠,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일대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한류 붐’ 이라 표현될 정도로 한국의 식문화, 드라마, 음악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음식, 이자카야 등은 여전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일본의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가 진전되는 가운데, 특히 식품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소비자는 상대국 국내가격과 큰 가격 차이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므로 국내 경기를 자극할 수 있다. 나아가 양국 간의 식품 무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또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사업자에게도 경쟁력이 요구되어 경쟁력 높은 양질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므로 이는 모두 소비자의 이익으로 직결 될 것이다.

⑥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

EU, 미국, 중동 등의 경제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정보수집, 분석, 해결책 검토 등 함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유럽경제위기에 대응한 한일 통화 스와프 합의도 이러한 협력 안건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을 통해 이와 같은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발전된 공동의 기반 구축에 대해 함께 검토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변영, 한일경제의 공존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3.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측의 우려사항에 대한 고찰

① 대일무역적자 문제

(가) 이미 한국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사료되나, 작금의 경제 글로벌화에 맞춰 한일 양국은 세계 시장의 니즈에 맞는 상업활동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무역 입국(貿易立國)의 대표적 나라이다. 2010년 한국은 수출 466,384 백만 달러(+

28.3%), 수입 425,212 백만 달러(31.6%), 무역 수지 41,172 백만 달러(+1.8%)로 매년 높은 수준의 무역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나) 특히 한국에게 중국은 무역관계로 볼 때 수출(116,838 백만 달러), 수입(71,574 백만 달러) 모두 제 1 위의 상대국이며 무역수지는 45,264 백만 달러의 흑자를 계상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을 상회하는 수치로 일본과의 무역적자액 36,120 백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대일 수출액이 대폭 증가한 바, 2011년 1~9월 누계 29,306 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6.1% 증가하였다. 대일 적자도 22,406 백만 달러로 18% 감소하였으며 대일 무역적자는 축소되는 추세이다.

- (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 자본재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가공·제조한 후 완제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외 수출이 증대되고 생산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대일무역적자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형태이므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한일 양국 간 무역에 국한시켜 무역적자를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라)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에 따르면 대일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율은 44.5%이며 대일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재수출용 품목'이다. 실제 대일무역적자에서 이 부분을 빼면 70억 달러 정도(2010년)이며 올해 대일수출증대에 따른 적자축소를 고려하면 이것또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다. 원래 대일수입의 약 50%가 원재료, 45%가 자본재이며, 소비재는 5%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재료와 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대체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한국기업의 생산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무역구조임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로 당장 대일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수입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로 한국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으로 한일 FTA를 체결하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자본재 비용이 낮아지므로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틀림없이 기여할 것이다.

- (마) 실제로 한국이 대일무역적자를 확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지금까지의 산업구조에 착목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문제'는 상호보완적 무역관계를 통한 양국 WIN-WIN의 상징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입장에서도 한국기업과 연계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바) 따라서 항상 한일 FTA에서 문제시 되는 대일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경제 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일 간의 무역구조, 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한일 비즈니스 협력관계, 일본의 기여도 등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여 이러한 대일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전통적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② 중소기업대책

한일 FTA 에 의해 한국측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일본제품으로 인해 국내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품 산업은 이미 성숙한 상태이고 한국의 주요수출제품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20 년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4 대 부품 소재 강국이 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FTA 체결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이 용이해지고 (저가격, 제품 선택의 폭이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육성으로 연결되므로 오히려 FTA 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작금의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편적인 흐름이다.

지금까지 일본측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일본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경제산업성, 지식경제부, 양국의 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협력하여 한일중소기업 관민(官民)합동회의,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 한일중소기업 정책대화 등을 개최하였고,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조달을 위한 역건본시 개최(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을 육성, 사업 기회(business chance)를 제공해왔다.

또한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현지 조달비율 확대를 위해 납입처(부품조달처)인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인재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간 협조 하에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도 SJC 및 부산일본인회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도 장차 한일 FTA 가 체결되어야 크게 꽃피울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 FTA 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에 일본의 기업문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연결되며 인재육성, 기술이전 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일본기업에 의한 한국제품의 수입 증가 또는 대한 투자로도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조달과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한일 FTA 야 말로 한국의 다음 목표인 부품강국, 소재강국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4. 맺음말

한일 FTA 는 최종적으로는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추진되는 하이레벨의 협정이란 생각되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양국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各界) 및 국민들의 지지이다.

일반적으로 FTA 등에 의해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경쟁력의 우열(優劣)이 발생하여 무역 불균형과 기업 및 경제 격차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호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판매 증가에 따른 수익 증가, 자

본측적 증가에 따른 투자 등 선순환이 기대되어, 더욱더 경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과 대만기업의 대두로 세계 각지에서 양국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SJC 및 부산일본인회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상호보완적 관계의 강점을 한층 더 강화, 확대하여, 앞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함께 세계를 향해 도약해 나갈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은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징적인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일경제인회의’에서도 양국의 경제인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간에 인적·물적·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양국 경제의 번영과 파트너로서의 관계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기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정비한 예측 가능한 역내 통합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의 조기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일 FTA 체결은 결코 서로의 시장, 상권(商圏), 파이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서로 보완, 협력하면서 새로운 세계시장으로 진출, 약진해 나가기 위한 스텝 업(step up)의 과정이자 토대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며 한일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한 상호 win-win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일 FTA의 협상재개, 협상 타결을 요망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SJC(Seoul Japan Club) 이사장 아와야 쯔토무(粟谷 勉)

부산일본인회 회장 오미치 히데타카(大道 英隆)

SJC(Seoul Japan Club) 일동

부산일본인회 일동